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b>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li> <li>●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하나이다.</li> <li>○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열을 새롭게 하시어 성서를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주소서.</li> <li>●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li> <li>◎ 아멘.</li> </ul>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공 동 체 소 식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7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14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21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28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31	\$ 260.00	-	\$ 1,010.00

\*미사책 대금: \$240.00

### 2016 년도 미사책값: \$ 55

2016 년도 미사책 값은 \$55 을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2 월 소공동체 모임: 2/21 (주일) 친교실

2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세째 주일인, 2 월 21 일 '오전 8 시 주일미사' 이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홀리스를 위한 봉사활동: 4/2 (토) 아침

베이커스필드 한인공동체에서 '홀리스를 위한 아침식사 제공' 봉사활동 일정이 4 월 2 일(토)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용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당 공용 성가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반환하여 주십시오.

### 세금보고 영수증

'2015 년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 (Charity donation receipt)은 1 월 말 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확인은 이 그레이스 (한인 공동체 재무부장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 말씀의 이삭

### 언제나 떠날 준비를

이해인 수녀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 시인

당신 말씀대로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쳐 /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물고기에 /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 저도 당신 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 할 말을 잃어버린 작은 어부입니다 / 주님,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 제가 절망의 한 가운데 서 빈 그물을 씻을 때마다 / 당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치면 / 비늘이 찬란한 희망과 기쁨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 삶에 필요한 겸손과 인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 멀리 떠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 배와 그물조차 버리고 당신을 따라나선 제자들처럼 / 모든 정든 것을 버리고도 기뻐 수 있는 / 사랑의 순명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 이해인의 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 몹시 기뻐하던 제자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하여 부른 것처럼 나도 올해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크고 작은 기쁨, 놀라운 은총의 체험을 기도 안에서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웃과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들과는 달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종교에 대해서 침묵만 하시던데요. 그 삶이 좋고 행복하면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거나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택시를 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기사에게 말로 하는 것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상대가 어찌 생각하건 간에 좋은 것은 일단 말을 해야 안다는 그의 말에 나는 자극을 받았습시다.

'또 다른 선한 세계가 있다는 것, 신앙인의 기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포해 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줄어들 것 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나에게 편지로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나선 제자들처럼 나도 가장 익숙한 것 정든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부르심의 길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더구나 지난해 말과 연초에 내가 매우 위독하다거나 죽었다는 오보 가 나가면서 발견하게 된 나를 향한 추모글과 여러 댓글까지 읽게 되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글방을 방문하는 친지들에게 아끼던 물건들도 선뜻 내어주는 나를 보고 "이제 정말 떠날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 고 그들은 농담조로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의 그늘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의 표현으로 작은 애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수도원 동료나 장상들에게 기꺼이 순명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호들갑스럽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아껴두었던 감탄사를 더 자주 연발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며 분홍빛 화살기도를 쏘아 올립니다.

'주님, 저의 삶이 당신을 향해 깨어 흐르는 놀라운 사랑의 감탄사가 되게 하소서!' 라고. <서울주보에서>

### [교리상식]

#### '하느님'과'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은 우리 말로는 하늘, 한자로는 천(天)의 존칭어 로서, 절대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1971 년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성서 공동번역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로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합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